

##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115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2, 13-25)

###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 함께하는 복음 묵상

요한 2,13-25

어린시절 성당에 가면 미사와 주일학교가 끝나도 성당 마당에서 놀곤 했다. 당시에 성당 정문 바깥쪽은 길이었다. 그 길에는 삼자루를 든 할아버지, 채소가 가득한 대광주리를 머리에 인 아주머니도 지나가시고, 우마차도 지나가고 그랬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성당 앞에서 멈추어 섰다.

그리고는 거친 손을 모으고 성당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셨다. 논밭과 집을 오가며 지나치는 성당이지만 길에서도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어르신들의 깊은 신심은 지금 생각해도 감동이다. 내 기억의 초라한 시골성당과 요즘의 크고 화려한 성당을 비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 개념의 건축 기술과 미학, 실용성을 겸비한 웅장한 성당이건만, 예전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신심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오늘 복음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과월절 기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성전정화 이야기이다.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모습은 없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상황은 심상치 않다. 예수님께서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가축들을 쫓아내시고 상인들의 환전 판을 엮으셨으니,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다. 인자하고 어지신 예수님, 사람들의 고통에 오히려 아파하시고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이신데, 이렇게까지 행동하시는 연유는 보통이 아니다. 더군다나 수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라 하시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알아듣지 못할 말씀에 유대인들은 기가 찰 지경이다.

과월절은 이집트 종살이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가장 큰 축제였다. 율법에 따라 타향에 사는 유대인들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고 예물을 바쳐야 했다. 그러나 각지에서 인파가 몰려들다보니 봉헌 물로 거래되는 가축들과 성전세로 바치는 환전에서 폭리와 착취가 성행한 것이다. 성전에서 난무하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의 횡포를 보신 예수님은 성전의 부조리함에 의노 하셨다. 탐욕으로 물든 하느님의 성전은 깨끗해져야 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요한2,19)는 말씀으로 성전과 당신을 동일시하시고, 정화의 완성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임을 예고 하셨다.

사순시기 동안 우리도 하느님을 도외시한 현실의 우상들을 허물고 정화하여 자신을 “성령의 성전”(1코린6,19)으로 리모델링(remodeling)해야 하겠다.

“하느님의 거처”(에페 2,22)는 내 안에서부터 지어지는 것이다. 열정 없는 봉사, 신심 없는 율법준수, 배금주의 가치관을 허물어야 한다. 교회의 생명력 또한 물질적 풍요나 조직적 관리 운영에 둘 수 없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하느님을 만나는 새로운 성전이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참된 계약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계명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신 집에 대한 열정”(시편 69,10)으로 성전에 나와 진실한 예배와 봉헌으로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자.

(수원교구 3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 “사무엘기의 내용과 구조!”

5분 신앙상식

## 사무엘기 상.하권

### 저자

이 책은 구성상 두세 개의 자료로 이루어진 듯합니다. 사무엘이나 나탄 혹은 가드에 의해서 저술되었으리라는 유다의 전승이 있으나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되는 등, 그와 같은 이유로 그 설을 믿기 어렵습니다. 신명기계전승자들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료들을 모아 대략 기원전 550년경에 최종 집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시대 배경

왕조가 탄생되어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역사(기원전 1050-970년경).

### 편집목적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솔로몬 통치 세대에 그 초본이 문서화되었으며, 이 책은 바빌론 유배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다윗 왕조의 탁월성과 죄악을 동시에 묘사하면서도 다윗 왕조를 지키시리라는 하느님의 약속은 변치 않음을 알려 줍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는 임금이 아니라 주 하느님이시며 그분의 뜻과 말씀에 따라야 미래와 희망이 있으리라고 증언합니다. 사울과 다윗, 다윗의 즉위와 왕궁 사건들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 공지사항

-2009년 사순절 신앙 생활표를 잘 실천합시다.(매일 성경읽기와 본당 성경공부 참석)

-사순시기동안 매 금요일 십자가의 길 기도에 적극 참여 합시다.

## 요한 20,19-31

## 다음 달 성경말씀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24절)

\* 당신은 교회공동체를 떠나 고립된 생활을 하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쉬는 교우들을 위해 어떤 희생을 바칩니까?

## 소공동체 기도문

## 소공동체가

○ 하느님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열마오 제 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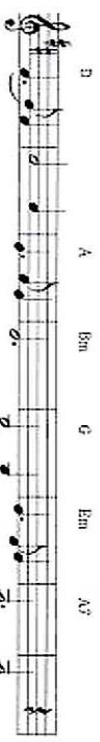
가도하며...  
저서 원 정 수  
적목 현 정 수



하느님 백 성 자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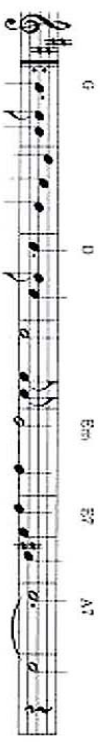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일렬 무 아 -



중 - 기 하 고 공 사화 자 세 상 모 두에 게 -



마 음 모 - 아 기도하 고 함께 나 가자 천국 으 로 -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